

이라크의 石油産業動向

4년 이상 계속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라크의 石油産業은 거의 마비되었다. 개전 초기에 페르시아灣의 석유수출터미널이 파괴되고 뒤이어 시리아의 파이프라인 봉쇄 등으로 석유수출이 대폭 감소되면서 이라크는 제정압박에 직면하여 있다. 그러나 OPEC 산유국 중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은 石油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는 장기적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의 하나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石油부문이 외화가득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로서는 1979년 최고 330만B/D까지 올라갔던 石油수출량이 최근에 100만배럴 이하로 급감하자 70년대 호황기에 입안했던 농·공업진흥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石油수입을 확보하고자 정책방향을 급선회시켜 석유수출시설 확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석유수출통로 모색

石油수출 창구인 페르시아만의 Fao 터미널이 개전초인 1980년 가을 파괴된데 이어 이듬해 4월 맹방이었던 시리아가 송유능력 하루 140만배럴규모인 Haditha-Banias 파이프라인을 봉쇄함에 따라 이라크는 당분간 地中海연안 Dortyol 터미널로 연결되는 터키 통과 파이프라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파이프라인의 부설초기 송유능력은 70만B/D였으나, 금년에 1억 2천만달러를 투입하여 100만배럴 규모로 확장시켰으며, 이와 병행하

여 또 하나의 송유관을 부설하여 전체 송유능력을 150만배럴까지 신장시킬 것을 터키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라크가 석유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Petroline(동서 파이프라인)과 병행하는 전용 파이프라인 부설이다. 공사의 처음단계는 이라크의 남부유전으로부터 Petroline 본선에 연결되는 390마일의 지선을 부설하여 Petroline을 이용하고, 다음 단계로 Petroline과 나란히 송유능력 하루 160만 배럴규모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홍해안에 독자적인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Petroline의 현 송유능력은 185만B/D인데 245만B/D규모로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50만B/D의 송유능력을 이라크가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탈 페르시아만 석유수출프로젝트로 이라크의 Haditha와 요르단의 Agaba 항을 연결하는 全長 580마일의 송유관 부설계획을 들 수 있는데 美國의 수출입은행(EXIM Bank)과 체이스 맨하튼 銀行으로부터 10억달러의 차관을 얻어 부설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안보상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경과 너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美國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PG수출계획의 일환으로 이라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地中海연안 Dortyol 터미널로 연결되는 터키 통과 파이프라인과 병행하는 연간 수송능력 300만톤의 LPG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이다. 이

라크의 Kirkuk와 지중해연안 Yumurtalik를 잇는 동 LPG 파이프라인의 건설비용은 1천 50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라크와 터키가 공동으로 부담키로 되어 있다. 이라크의 석유수출통로가 막히게 되자 인근 아랍국가들이 석유판매수입이 급감한 이라크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이를 위해 中立地帶에서 하루 30만배럴의 K-nafji 원유를 생산판매해 주고 있으며, 사우디는 독자적으로 하루 7만배럴의 원유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石油생산·소비·수출현황

석유수출량의 파괴 및 파이프라인 봉쇄등으로 原油 수출능력이 대폭 감소하자 교전지역인 남부의 3개 油田을 폐쇄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생산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전부터 몇개의 유전을 개발하여 오던중 전쟁으로 지연 또는 중지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전쟁만 아니었다면 기존의 생산능력 하루 400만배럴에 200만배럴은 추가시켰을 것이다. 개발의 지연 또는 중지된 유전으로는 Halfaya, Qurnah, Majnoon 및 Nahr Umr 유전등인데 이중에서 Majnoon 유전은 매장량이 70억배럴 규모로 이라크의 미개발 최대유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매장량을 살펴보면, 최근 중부 및 북부지역에서의 성공적인 탐사로 이라크 전체 확인 원유매장량은 650억배럴이고, 추정매장량이 460억배럴이 있으므로 전체 매장량은 1,000억배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구나 바그다드 동부 및 서부지역에서 탐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장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쟁이 끝나고 현재 확장내지는 신규 건설되고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이라크의 석유수출능력은 하루 600만배럴 수준에 육박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계획중인 사우디 통과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기존의 터키 통과 송유관이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1986년에 가면 300만배럴 이상으로 신장될 것이다. 현재의 原油수출량은 약 70만B/D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라크의 석유제품 수출계획에 따르면, North 정유공장의 가동으로 생산되는 연

〈表 - 1〉 石油 생산, 소비, 수출 현황

(單位：千B/D)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생 산	2,562	3,477	2,646	897	1,012*	955*
소 비	162	185	207	212	228	246
수 출	2,384	3,275	2,459	746	811*	709*

註：*잠정치

〈資料〉 OPEC 미국 CIA자료

료유의 잉여분은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는 현재 Baiji 지역에서 생산되는 燃料油중 하루 약 9천톤이 트럭으로 요르단의 Agaba, 터키의 Mersin, Iskenderun 항으로 수송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밖에 하루 300톤의 NGL, 2천톤의 가스오일 및 소규모의 나프타 등을 터키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정제능력의 확충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확실한 숫자는 입수가 불가능하나, 현재의 정제능력은 약 35만B/D로 추산되는데 그중 24만 6천B/D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전에 오는 1985년까지 '년간 3,000만톤까지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역시 좌절되었다.

최근에 North 정유공장이 완공되어 바스타의 정제능력 상실분(일산 14만배럴)을 만회했고, 잉여 연료유의 수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原油판매 수입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바그다드에 인접한 8만배럴 규모의 Daurah 정유공장 및 기타지역의 5만배럴 정제능력을 제외한 이라크의 대부분의 정제능력은 북부 Baiji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Baiji의 총 정제능력은 Sal-al-Din 정유공장이 준공되는 금년 말이면 일산 29만 배럴이 될 것이다.

Baiji 지역의 주된 정제시설은 지난 해 2월 상업 가동한 15만배럴 규모의 North 정유공장이며 기타 다른 정제시설들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3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연간 25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진 윤활유 제조공장건설을 계획하여 건설의 주계약자로 지난 7월 이탈리아

〈表-2〉 국가별 原油수출현황

(單位: 千B/D)

	1978	1979	1980	1981	1982*
○北 美	86.5	100.7	52.6	11.2	2.7
美 國	62.0	92.2	33.4	11.2	2.7
○南 美	234.4	344.6	269.5	72.1	100.0
○西 歐	1,445.1	1,597.7	1,307.7	446.5	423.6
프 랑 스	419.3	499.3	475.0	47.3	30.1
西 獨	59.5	45.6	60.1	4.6	15.9
이 탈 리 아	386.9	456.4	240.6	159.4	116.7
네 덜 란 드	75.1	40.3	13.4	2.3	6.8
포르 투 갈	49.6	65.3	62.5	28.6	24.8
스 케 인	121.7	119.0	126.0	47.3	58.7
英 國	176.9	142.2	80.8	8.1	20.7
○東 歐	211.3	310.8	243.0	65.4	47.5
○中 東	35.6	52.3	40.9	10.9	35.0
○아 프 리 카	70.1	103.2	80.6	21.2	15.5
○아시아·극동	270.8	398.3	448.1	118.8	127.1
日 本	162.8	259.3	323.9	60.5	67.1
○대 양 주	30.6	16.4	16.6	-	-
미 확 인	-	369.3	-	-	-
計	2,384.3	3,275.3	2,459.0	746.1	811.4

註: *잠정치

〈資料〉 OPEC, OECD 분기별 통계, UN 에너지통계

아계 회사인 Technip and Technipetral사가 선정되었다.

기타 에너지 프로젝트

가스생산은 原油생산에 전적으로 의존되기 때문

에 4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그 생산량은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79년 144억m³에서 1982년에는 42억m³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이와 비슷한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85%는 공중연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Kirkuk, Jambur 및 Bai Haasan 油田으로부터 나오는 수반가스를 처리할 목적으로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가스채취 프로젝트가 거의 완공단계에 돌입했으므로 상황은 바뀔 것이다. 현재상태로 보아서는 보다 많은 LPG를 제조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터어키를 통해 수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전쟁으로 적지않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많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의 추진 및 달성여부는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자금동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라크의 국영전력(State Qrganisation for Electricity)은 파괴된 시설의 대체 및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코자 두개의 1200MW급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중의 하나는 바그다드 남방 45마일에 있는 Musib에 7억3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건설되는 화력발전소인데 이의 주계약자로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으며, 필요 기자재 공급은 일본의 히다찌와 英國의 NEI Person사가 맡았다.

기타 원자력 부문에서도 소련과의 계약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981년 바그다드에 ADCC(Arab Detergent Chemicals Co)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두개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건설되는 등 석유화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誌에서〉

체면치레 연말인사

하는부담 받는부담